

 <b>기획재정부</b>		<h1>보도자료</h1>	
<b>보도일시</b>	<b>배포시</b>	<b>배포일시</b>	2021. 10. 14.(수) 10:00
<b>담당과장</b>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이준범 (044-215-4810)	<b>담당자</b>	홍승균 사무관 hsgyun@korea.kr 송상목 사무관 mok88@korea.kr 한정연 사무관 jyhan03@korea.kr 서민아 사무관 seomeena@korea.kr
	세제실 신국제 조세규범과 김태정 (044-215-4250)		김지민 사무관 jeeminkim@korea.kr

**홍남기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 국가간 불균등 회복, 세계경제 분절화 등 세계경제의  
 균열(fault line) 해소를 위한 3가지 질서(Order) 언급 -  
 ①질서있는 복원(Restoration), ②질서있는 정상화(Normalization), ③질서있는 전환(Transition)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3(수)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장국 : 이탈리아)에 참석하였다.
- '19.10월 이후 2년만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10월 G20 정상회의(10.30~31일)를 앞두고 개최되는 회의로서
  - \* 통상 매년 4회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는 1차(2월)와 3차(6월 또는 7월)는 의장국에서, 2차(4월)과 4차(10월)는 IMF/WB 춘계회의 및 연차총회와 연계하여 워싱턴에서 개최
- 일부 국가(화상 참여)를 제외한 80% 정도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으로 참석하였다.

##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요 논의결과 】

- 이번 회의에서는 ①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과 정책 공조, ②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과 취약국 지원 방안, ③국경간 결제 등 금융이슈, ④디지털세 합의(안)의 원활한 이행방안 등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 < '21년 제4차 G20 재무장관회의 세션별 주요 논의사항 >

- ◇ (세계경제)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한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방향
- ◇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 등 글로벌 공공재와 SDR 등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방안 등
- ◇ (금융이슈) 국경간 결제 개선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논의
- ◇ (국제조세) 디지털세 논의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① 회원국들은 선진국/개도국 간 불균등 회복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 선부른 거시 정책기조 전환 지양,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② 이번 회의에서는 IMF 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 코로나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 (팬데믹 대응) 백신·치료제 등 공평한 보급을 위한 공급 문제(병목현상) 해소,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 (ACT-A\*, COVAX 지원\*\*)를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 코로나19 대응장비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의체

\*\*\* 코로나19 계기 드러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자원 미비점 개선논의

- **(기후변화 대응)** 회원국들은 기후대응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해 나가기로 하였다.

\* 탄소가격제 등 가격수단과 규제·보조금 등 비가격수단을 망라해 최적조합 마련

- **(저소득국 지원)** 참석자들은 IMF SDR 일반배분(6,500억불 규모) 재원을 활용한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확충을 지지하고 신규기금(RST\*\*) 신설도 가속화할 것을 IMF에 촉구하였다.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 저소득국 빈곤완화 등 지원기금(IMF)

\*\*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 SDR 일반배분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개발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추진중인 기금(IMF)

### ③ **(금융이슈)** 회원국들은 송금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국경간 결제 개선 로드맵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 디지털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등을 활용한 시장 효율성·투명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④ **(국제조세)** 참석자들은 지난 10.8(금) OECD 포괄적 이행 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필라1·2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지지하고

\* 필라1: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필라1 시행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등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실질기반 적용제외 구체화 등

- '23년부터 적용을 위한 모델규정 개발, 다자협약 마련 등 원활한 이행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 홍남기 부총리 발언 주요내용 ]**

-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세션1),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세션2), 국제조세(세션4) 등 3개 세션에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하였다.

- ① 세션1에서는 세계경제가 3가지\* 균열(fault line)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균열의 치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 \* ①국가간 불균등 회복, ②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③그린/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격차
- ①자유무역의 질서있는 복원(Orderly Restoration), ②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Orderly Normalization), ③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Orderly Transformation)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② 세션2에서는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취약국 지원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임을 언급하고,
- ①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 ②기후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③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PRGT 확충과 RST 신설을 지지하였다..
- ③ 세션4에서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①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는 점과
- ②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매출귀속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논의 등

## 【 평가 및 대응방향 】

- 이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10.30~31일)를 앞두고 열린 '21년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로 의장국 이탈리아 등 회원국들은 재무트랙 주요 의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①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②IMF SDR 등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③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원활한 구조전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승인된 디지털세 합의(안)은 지난 100여년간 지속되어온 국제조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대응한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 한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 IMF SDR일반 배분 등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논의를 선도하는 한편, OECD IF 운영위원회(24개국) 멤버이자,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 디지털稅 합의 도출에 기여하였다.
  - \* G20 재무트랙 산하 거시경제공조,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지속가능금융 등 4개 실무회의가 있으며, 한국은 프랑스와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을 담당
- 또, 자유무역 체제 복원 필요성,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의 탄력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종합적 대응 필요성 등 국내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우리 입장에 부응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반영하였다.
- 앞으로도 정부는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성과물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 영국 · 캐나다 · 아르헨티나 재무장관 면담 】

- 홍 부총리는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양자, 다자 차원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① (영국) 리시 서낙(Rishi Sunak) 영국 재무장관은 우리 측이 최근 발행한 외평채와 관련, 유로화 그린본드의 런던 증권거래소(LSE) 상장에 사의를 표하고,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계기, 양국 간 기후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금번 그린본드의 LSE 상장 및 COP26을 계기로 양국 간 금융/그린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으며, COP26 Finance day\*(11.3일)에 홍 부총리를 초청해 준영국 측에 사의를 표하고, 참석할 계획임을 발언하였다.

\* COP26을 계기로 최초로 개최하는 재무장관 간 회의로 환경 부처 뿐 아니라 재무 트랙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개최 (기후재원 등 논의 예정)

**② (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캐나다의 방역, 백신접종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측의 방역과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 홍 부총리는 “봉쇄 조치(Lock down)” 없이 경제를 운용하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백신접종을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서 with 코로나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 한편, 양국은 반도체 공급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稅 잔여 쟁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동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 지원에 있어 양국의 경험도 공유해가기로 하였다.

**③ (아르헨티나) 마틴 구스만(Martin Guzman)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가 발생할 수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재검토(시한: '22년초)에 있어서 자본유출입에 관한 CFM/MPM 활용이 각국이 처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홍 부총리는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과도 만남을 갖고 '22년 G20 주요의제를 논의하고 내년도 G20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mailto:moefpr@korea.kr)



## Communiqué

In the last months, the global recovery has continued at a solid pace, underpinned by the roll out of vaccines and continued policy support. However, the recovery of economic activity remains highly divergent across and within countries and exposed to downside risks, in particular the possible spread of new variants of COVID-19 and uneven vaccination paces. We reaffirm our resolve to use all available tools for as long as required to address the adverse consequences of COVID-19, in particular on those most impacted, such as women, youth and informal and low-skilled workers, and on inequalities. We will continue to sustain the recovery, avoiding any premature withdrawal of support measures, while preserving financial stability and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and safeguarding against downside risks and negative spillovers. Central banks are monitoring current price dynamics closely. They will act as needed to meet their mandates, including price stability, while looking through inflation pressures where they are transitory and remaining committed to clear communication of policy stance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advancing the forward-looking agenda set in the *G20 Action Plan* to steer the global economy toward strong, sustainabl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 as updated in April 2021, and welcome the *Fourth Progress Report* (Annex I). We confirm our April 2021 commitments on exchange rates. We reaffirm the important role of open and fair rules-based trade in restoring growth and job creation and our commitment to fight protectionism, and encourage concerted efforts to refor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e remain determined to bring the pandemic under control everywhere as soon as possible, and welcome efforts towards pandemic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PR), including commitments made in the Declaration of G20 Health Ministers. We thank the Multilateral Leaders Task Force for its efforts and encourage it to work to accelerate access to and on-the-ground delivery of COVID-19 tools. We will strive to help address the bottlenecks and shortages of COVID-19 tool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over the coming months, reaffirming our commitment to ensuring a safe, equitable and affordable access to vaccines, therapeutics and diagnostics. We recognise the role of COVID-19 immunisation as a global public good. We reaffirm our support to all collaborative efforts, most notably including the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ACT-A) and its COVAX Facility, and underline the need to address the financing gaps of all ACT-A pillars. We look forward to discussing concrete proposals at the Joint G20 Finance and Health Ministers' meeting on 29 October to strengthen future pandemic PPR and improve international governance, financing and coordination between global health and finance policy makers. This can include exploring the development of coordination arrangements between Finance and Health Ministries that recognise the crucial leadership role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the international health work.

After the historic agreement reached in July on the key components of the two pillars on the reallocation of profi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an effective global minimum tax, we endorse the final political agreement as set out in the *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and i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released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on 8 October. This agreement will establish a more stable and fairer international tax system. We call on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to swiftly develop the model rules and multilateral instruments as indicated in and according to the timetable provided i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with a view to ensure that the new rules will come into effect at global level in 2023. We welcome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port on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 We note the OECD report o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identifying developing countries' progress made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nd possible areas where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efforts could be further supported. We look forward to further discussing, on a regular basis, the initiatives undertaken to follow up the recommendations included in the report.

We will continue to explore and address the implications of major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technological and demographic challenges including through our recovery strategies. Drawing on the *G20 Menu of Policy Options - Digital Transformation and Productivity Recovery*, we will continue discussing policies to sustain productivity growth, and to help ensure that the benefits are evenly shared within and across countries and sector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important engines of innovation, growth, job creation and social cohesion and we look forward to the revision of the *G20/OECD high level principles on SME financing* in 2022. We recognise the importance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s and well-functioning capital markets to support the recovery, and look forward to the review of the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We agree to coordinate our efforts to tackle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o promote transitions towards greener, more prosperous and inclusive economies and societies. Tackling biodiversity loss remains an urgent priority. Following up on our July 2021 engagement on climate action, we call on different G20 work streams to act in synergy, within their respective mandates and while avoiding duplication, to inform our discussions on the most appropriate policy mix to move towards low-greenhouse gas emission economies,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circumstances. We agree on the importance of conducting, through the Framework Working Group, a more systematic analysis of macroeconomic risks stemming from climate change and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different transitions, including by drawing on well-established methodologies. We look forward to further analysis on macroeconomic and distributional impacts of risk prevention strategies and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ies. Sharing policies implemented by G20 members can also help inform our discussions. We take note of the outcome document of the first *G20 Infrastructure Investors Dialogue* on financing sustainable infrastructure for the recovery and we look forward to further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vestors to mobilise private capital. To support clean energy transitions, our policy mix should include a wide range of fiscal, market and regulatory mechanisms, including, if appropriate, the use of carbon pricing mechanisms and incentives, while providing targeted support for the poorest and the most vulnerable. We take note of the final *IMF/OECD Report on Tax Policy and Climate Change*. We recognise that our G20 Finance Track policy dialogue on the macroeconomic and fiscal impact of climate change policies could benefit from further technical work.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climate finance, technology transfer and investment in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promote decarbonisation and circular economy. We encourag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to step up their efforts to pursue alignment

with the Paris Agreement within ambitious timeframes and finance sustainable recovery and transition strateg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and to set out plans to mobilise private finance, in line with their mandates and internal approval procedures, while continuing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Sustainable finance is crucial for promoting orderly and just transitions towards greener and more sustainable economies and inclusive societies, in line with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aris Agreement. We endorse the *G20 Sustainable Finance Roadmap* and the *Synthesis Report* prepared by the 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 (SFWG). The Roadmap, initially focused on climate, is a multi-year action-oriented document that is voluntary and flexible in nature. With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Os) and partners, it will inform the broader G20 agenda on climate and sustainability, future work plans of the SFWG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work streams. It is complemented by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Roadmap for addressing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 and is designed to accommodate the evolving sustainable finance landscape and the G20 priorities going forward,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circumstances. We recognise the importance of gradually expanding the *G20 Sustainable Finance Roadmap's* coverage to include additional issues, such as biodiversity and nature as well as social matters, based on mutual agreement by G20 members in the coming years. In the spirit of encouraging responsible innovation, we welcome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2021 G20 TechSprint, a joint initiative with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Innovation Hub, which focused on operational issues related to green and sustainable finance.

Recognising universal, secure, affordable, advanced and well-functioning digital infrastructure as an important driver for the economic recovery, we endorse the *G20 Guidelines for Financing and Fostering High-Quality Broadband Connectivity for a Digital World*, developed with the support of the OECD. We welcome the non-binding and voluntary Global Infrastructure Hub (GI Hub) *Compendium of Innovative Funding and Financing Measures for Green and Circular Infrastructure* and the *Roadmap for Enabling Circular Economy Potential in Infrastructure*. Building on previous efforts, we will continue, in a flexible manner, the dialogu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vestors to mobilise private capital. We take note of the discussions held at the *G20 High Level Conference on Local Infrastructure Investment* organised on 27 September 2021 in Genoa to promote knowledge sharing between local authorities and national governments.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inclusive infrastructure and take note of the contributions from OECD and other IOs in this regard. We welcome advancing the work on the *G20 Principles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QII), and take note of the work on possible QII indicators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look forward to further discussion in this area at the next Infrastructure Working Group meeting. We reiterate the need to better inform infrastructure investment decisions, including through the *G20 Roadmap for Infrastructure as an Asset Class* and the ongoing work of related initiatives by IOs on access to data, such as the Infrastructure Data Initiative. We agree to extend the GI Hub mandate until the end of 2024.

We renew our commitment to supporting vulnerable countries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We welcome the new general Special Drawing Rights (SDR) allocation implement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on 23 August 2021,

which has made available the equivalent of USD 650 billion in additional reserves globally. We also welcome the measur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reporting and use of SDRs. We appreciate the recent progress by the IMF towards providing actionable options for members with strong external positions to voluntarily channel a share of their allocated SDR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help vulnerable countries. We are work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ignificant scaling up of th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s lending capacity and call for further loan and subsidy contributions from countries able to do so. We call on the IMF to establish a new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RST) – in line with its mandate – to provide affordable long-term financing to help low-income countries, small developing states, and vulnerable middle-income countries to reduce risks to prospective balance of payment stability, including those stemming from pandemics and climate change. The new RST should preserve the reserve asset characteristics of the SDRs channelled through the Trust. We call upon the IMF and World Bank (WB) to collaborate closely to develop and implement financing under the RST. We also remain open to consider viable options to voluntarily channel SDRs to MDBs. We call for additional IMF members to consider signing voluntary SDR trading arrangements to enhance market capacity. We thank the IMF for its update on the surcharge policy and look forward to further discussion of it at the IMF Executive Board in the context of the precautionary balances interim review.

We welcome the progress achieved under the G20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 which is also agreed by the Paris Club. As of [October 2021], [placeholder] countries have requested to benefit from the second extension of the DSSI, amounting to an estimated USD [placeholder] of total debt service deferred in 2021. All official bilateral creditors should implement this initiative fully and in a transparent manner. We welcome MDBs disbursement of USD [placeholder] on to DSSI-eligible countries over the period between April 2020 and [placeholder] 2021, as part of their USD 230 billion commitment to support emerging and low-income countri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We welcome the IMF disbursements of USD [23] billion (USD [19.6] billion in net transfers) to DSSI-eligible countries from April 2020 through [September] 2021 through its various facilities, including the 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CCRT). We support the IMF to secure additional donor contributions to the CCRT to provide debt service relief for COVID-19 and future shocks.

We welcome the recent progress on the *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 beyond the DSSI*. We commit to step up our efforts to implementing it in a timely, orderly and coordinated manner. These enhancements would give more certainty to debtor countries and facilitate the IMF's and MDBs' quick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We also support early engagement of borrower countries and private creditors in the *Common Framework* process. We will continue to work towards addressing debt vulnerabilities. We note that Creditor Committees may discuss and find appropriate solutions on a case-by-case basis for those countries that have requested debt treatment. We reaffirm the importance for other official bilateral creditors and private creditors of providing debt treatments on terms at least as favourable, in line with the comparability of treatment principle, and urge in particular Chad's private creditors to act swiftly. We also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or committee for Ethiopia, and look forward to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We look forward to progress in the discussions between the IMF and Zambia. We recall the forthcoming work of the MDBs, as stated in the *Common Framework*, in light of debt vulnerabilities.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joint efforts by all actors, including private creditors, to continue working towards enhancing debt transparency.

We look forward to progress by the IMF and World Bank Group on their proposal of a process to strengthen the quality and consistency of debt data and improve debt disclosure. We welcome the improvement in implementation of the *G20 Operation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ing*, as highlighted by the results of the second voluntary self-assessment, and encourage continued progress, while respecting domestic processes. We look forward to the launch of the joint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IF)/OECD Data Repository Portal and encourage all private sector lenders to adhere to this initiative, in line with the *IIF Voluntary Principles for Debt Transparency*. The G20 takes note of the IMF's ongoing work on ways to improve the architecture for sovereign debt restructurings involving private sector creditors.

We reaffirm the crucial role of the MDBs' long-term support towards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cknowledging the high financing needs of low income countries, we look forward to an ambitious IDA20 replenishment by December 2021, including through the sustainable us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s balance sheet. We also look forward to the future African Development Fund-16 replenishment in 2022. We look forward to the Independent Review of MDBs' Capital Adequacy Frameworks. We welcome the progress made within the G20 Compact with Africa and reiterate our continued support to the initiative. We welcome the Finance in Common Coalition and recognise the important role of Public Development Banks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SDGs and the Paris Agreement goals. We look forward to the *2021 Finance in Common Summit* on 19 and 20 October in Rome and ask the Coalition to report on its progress in 2022.

We reiterate ou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long-term financial resilience and supporting inclusive growth, including through promoting sustainable capital flows, developing local currency capital markets and maintaining a strong and effective Global Financial Safety Net with a strong, quota-based, and adequately resourced IMF at its centre. We look forward to the forthcoming review of the IMF's Institutional View on the liberalisation and management of capital flows, informed, among others, by the Integrated Policy Framework. We remain committed to revisiting the adequacy of IMF quotas and will continue the process of IMF governance reform under the 16th General Review of Quotas, including a new quota formula as a guide, by 15 December 2023.

We remain committed to a cooperative approach aimed at ensuring that the financial sector provides adequate support to the recovery while preserving financial stability. We look forward to the FSB final report on the lessons learnt from the COVID-19 pandemic from a financial stability perspective and the proposed next steps to address the issues it identifies. While the global financial system has been largely resilient, some areas of the regulatory framework, such as the functioning of capital and liquidity buffers and potential sources of pro-cyclicality, will be further evaluated; gaps remain which we are committed to addressing, including by completing the remaining elements of the G20 regulatory reforms agreed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NBFi) sector with a systemic perspective, and reducing the need for extraordinary central bank interventions, by implementing the November 2020 FSB workplan and addressing vulnerabilities exposed by the March 2020 market turmoil with urgency. As a first step, we endorse the FSB final report on policy proposals to enhance money market fund (MMF) resilience. We will assess and address MMF vulnerabilities in our jurisdictions, using the framework and policy toolkit in the report, recognising the need to tailor measures to jurisdictions' specific circumstances,

as well as taking account of cross-border considerations. We call on the FSB,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to conduct, by the end of 2023, a stocktake of progress made by member jurisdictions in adopting reforms to enhance MMF resilience, followed-up, by 2026, with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adopted by jurisdictions in addressing financial stability risks. We look forward to the FSB progress report on NBFI, which will bring together findings across the NBFI work plan and identify areas where further policy action is needed to enhance NBFI resilience, including to improve NBFI risk monitoring and to mitigate liquidity risks in open-ended funds. Given the cross-border nature of NBFI,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s necessary. We also look forward to the FSB examining the interactions between USD cross-border funding and NBFI-related vulnerabiliti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external financing. We welcome the FSB Report on Cyber Incident Reporting and will work to achieve greater convergence in this area.

We reiterate our commitment to a timely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G20 Roadmap to enhance cross-border payments*. We welcome the progress reported against milestones set for 2021, and we endorse the ambitious but achievable quantitative global targets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cost, speed, transparency and access by 2027 set out in the FSB report. The success of this work depends on the commitment of public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working together in a coordinated manner. We also welcome the FSB Progress Report on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 We reiterate that no so-called "global stablecoins" should commence operation until all relevant legal, regulatory and oversight requirements are adequately addressed through appropriate design and by adhering to applicable standards. We encourage jurisdictions to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SB High-Level Recommendations, and standard setting bodies to complete their assessment of whether to make any adjustments to standards or guidance in light of the FSB Recommendations, which will inform the review of the FSB Recommendations in 2023.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CPMI)-IOSCO consultative report setting out that, where a stablecoin arrangement performs a transfer function and is determined by authorities to be systemically important, the stablecoin arrangement as a whole would be expected to observe all the relevant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We also welcome the second 12-month review on the global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standards on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s and look forward to the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in the sector. In line with the findings of the review, we note the importance of jurisdictions implementing the revised FATF Standards on virtual assets. We encourage the CPMI, BIS Innovation Hub, IMF and WB to continue deepening the analysis on the potential rol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in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and their wider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enhancing digital financial inclusion of vulnerable and underserved segments of society, including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 carrying forward the work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PII) and implementing the *G20 2020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We therefore endorse the G20 Menu of Policy Options for digital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consumer and MSME protection "*Enhancing digital financial inclusion beyond the COVID-19 crisis*", with the aim to provide a guide for policymakers in their efforts

to lay the ground for new financial inclusion strategies in the post-pandemic world. We look forward to the review of the *G20/OECD High-Level Principl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2022. We welcome the *2021 Update to Leaders on Progress Towards the G20 Remittance Target*. We support the GPFI in bringing forward the monitoring of National Remittances Plans, also gathering more granular data, and strongly encourage the continued facilitation of the flow of remittances and the reduction of average remittance transfer costs.

We reaffirm our full support for the FATF and recognise that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AML/CFT/CPF) measures is essential for building confidence in financial markets, ensuring a sustainable recovery and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We stress the relevance of risk-based approach in the FATF recommendations with the aim to ensure legitimate cross-border payments and to promote financial inclusion. We confirm our support for strengthening of the FATF recommendations to improve beneficial ownership transparency and call on countries to fight money laundering from environmental crime, particularly by acting on findings of the FATF report. Finally, we reiterate the commitments made in Venice in July 2021 aimed at sus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Global Network through additional contributions to FATF-style Regional Bodies.

※ 국문 번역은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드리는 자료이며, G20의장국이 발표한 원문과 불일치하는 경우 원문이 우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수 개월간 백신 보급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인해 전 세계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회복세는 국가간, 국가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존재하고 불균등한 백신이라는 하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나 저숙련 노동자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돕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필요한 때까지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지원정책의 금융안정성과 장기 재정건전성에 유의하는 가운데, 성급한 철회를 지양하고 하방 위험과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비하여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다. 각 국 중앙은행은 현재 물가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살펴보고 정책입장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물가 안정을 포함하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4월에 업데이트된 바와 같이 G20 액션 플랜의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추진하여 세계 경제의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 성장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며 제 4차 이행보고서(Annex 1)를 환영한다. 우리는 2021년 4월에 약속한 환율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칙기반 무역이 성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과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며, 세계무역기구(WTO)개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곳에서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G20 보건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을 포함하는 팬데믹 예방, 준비 및 대응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코로나19 물자에 대한 접근성과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리더 태스크포스(Multilateral Leaders Task Force)의 노력에 감사하며 이를 지지한다. 우리는 향후 수개월 동안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물자의 병목현상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공평하며 적정 가격에 보급하기 위한 의지를 재다짐한다. 우리는 코로나 면역이 글로벌 공공재로서 갖는 역할을 인지한다. 우리는 특히 ACT-A와 COVAX Facility를 포함한 모든 공동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표시하며, 모든 ACT-A 필라의 자원 격차를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10월 29일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미래 팬데믹 PPR을 강화하고 국제 거버넌스, 자원조달 및 재무-보건 정책 입안자 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여기에는 국제 보건에서의 WHO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재무와 보건 장관 간의 공조 방안(coordination arrangements) 모색이 포함될 수 있다.

7월에 두 개 필라의 핵심 구성요소인 다국적기업 이익 재배분과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한 세율에 관하여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진 후, 우리는 10월 8일에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를 통해 발간된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두 개의 필라로 구성된 솔루션에 관한 성명'에 규정된 최종 정치적 합의를 지지한다. 해당 합의문은 한 층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조세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세부 이행 계획(Detailed Implementation Plan)에 명시된 시간표에 따라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가 모델 규정과 다자간협정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새로

운 규정이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이후 조세와 재정정책(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에 관한 OECD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하여 이룬 성과와 국내 자원조달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개발도상국과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에 관한 OECD 보고서를 주목한다. 우리는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따르기 위해 시행된 이니셔티브를 정기적으로 추가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회복 전략 등을 통해 주요 경제, 사회, 환경, 기술, 인구통계학적 영향을 모색하고 해결할 것이다. 'G20 정책대안 -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회복(G20 Menu of Policy Options - Digital Transformation and Productivity Recovery)'을 토대로 생산성 증진 유지를 위한 정책과 이에 대한 혜택이 국가내 및 국가와 부문 간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통합의 핵심동력이며 2022년에 '중소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G20/OECD 고위급 원칙(G20/OECD high level principles on SME financing)'의 개정을 기대한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 모범적인 기업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제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G20/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검토를 기대한다.

기후변화, 환경 보호와 같은 전 세계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이며 번영하는 포용적인 경제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에 동의한다. 생물다양성 손실예의 대처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이다. 7월에 약속한 기후행동에 이어 저탄소배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조합에 관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G20 업무가 개별 목적과 중복 방지를 염두하되,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우리는 FWG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전환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확립된 방법론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위험 예방 전략과 적응 및 감축 정책이 거시경제와 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을 기대한다. G20 회원국이 이행한 정책을 공유하는 것 또한 논의에 유익할 것이다. 우리는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관한 제1차 G20 인프라 투자자 대화의 성과보고서에 주목하며 민관 투자자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확대하길 희망한다.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조합은 광범위한 재정, 시장, 규제 수단 및 적절한 경우 탄소가격제와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극빈국과 취약국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조세정책과 기후변화에 관한 IMF/OECD 최종 보고서(final IMF/OECD Report on Tax Policy and Climate Change)'를 염두에 둔다. 우리는 추가적인 기술적 업무 노력이 기후변화가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G20 재무트랙 정책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우리는 탈탄소화 및 순환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기후금융과 기술 이전, 혁신 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MDB)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야심찬 기한 안에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회복과 전환 전략, 신흥국과 개도국의 NDC와 장기 저탄소배출개발전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기구의 목적과 내부적으로 승인된 절차에 부합하는 민간재원조달 방안을 고안하면서 UN의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할 것을 장려한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녹색 및 지속가능한 경제와 포용적인 사회로 질서 있고 공정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는 지

속가능금융워킹그룹(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 SFWG)이 마련한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과 종합 보고서(G20 Sustainable Finance Roadmap and the Synthesis Report)'를 지지한다. 해당 로드맵은 초기에 기후에 집중한, 자발적이며 유연한 성격을 지닌 다년간 행동 계획이다. 국제기구와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해당 로드맵은 더욱 광범위한 기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G20 의제와 SFWG의 미래 업무계획, 그리고 그 외 관련 국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FSB의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해결 로드맵(Roadmap for addressing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이 이를 보완하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금융 로드맵의 발전과 향후 G20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앞으로 수년 안에 G20 회원국의 상호 동의 하에 G20 지속가능 금융 로드맵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생물다양성과 자연, 사회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정신 하에 녹색 및 지속가능한 금융의 운용 문제를 다루며 BIS 혁신 허브와 함께하는 공동 이니셔티브인 2021 G20 TechSprint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환영한다.

보편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경제회복의 핵심동력이라는 점을 인지하며, 우리는 OECD의 지원과 함께 개발된 '디지털 세계 구축을 위한 고품질 광대역 연결 관련 자금조달 및 육성에 대한 G20 지침서(G20 Guidelines for Financing and Fostering High-Quality Broadband Connectivity for a Digital World)'를 지지한다. 우리는 구축력이 없으며 자발적인 GI Hub의 '녹색 및 순환 인프라를 위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개요(Compendium of Innovative Funding and Financing Measures for Green and Circular Infrastructure)'와 '인프라의 순환경제 잠재력 발휘를 위한 로드맵(Roadmap for Enabling Circular Economy Potential in Infrastructure)'을 환영한다. 우리는 기존 노력에 더하여 민간 자본 조달을 위해 민간과 공공 투자자 간의 대화를 유연한 방식으로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9월 27일 제노아에서 개최된 지방 인프라 투자에 관한 G20 고위급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지방 당국과 중앙정부 간의 지식 공유 논의를 유념한다. 이에 따라 포용적인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OECD와 그 외 국제기구의 공헌을 인지한다. 우리는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G20 Principles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에 대한 작업의 진전을 환영하며, 국제 금융 공사(IFC)가 마련한 고품질 인프라 투자지표 후보들에 주목하며, 다음 IWG 회의에 해당 내용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투자자산으로서의 인프라에 관한 G20 로드맵(G20 Roadmap for Infrastructure as an Asset Class)'과 국제기구가 데이터 접근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를 통해 더 나은 인프라 투자 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GI Hub 존속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취약국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다짐한다. 우리는 8월 23일에 IMF가 시행한 6,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SDR의 일반배분을 환영한다. 또한 SDR 사용 보고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최근 IMF가 선진국이 취약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법규 틀 안에서 자발적으로 SDR를 공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한 것을 치하한다. 우리는 빈곤감축 및 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Growth Trust) 재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량이 되는 국가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저소득국가와 소규모 개발도상국, 취약한 중소득 국가가 적정 가격의 장기 자금 지원을 통해 팬데믹 및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국제수지 안정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IMF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RST) 기금을 신설하기를 바란다. 신설 RST를 통

해 재분배되는 SDR은 대외준비자산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IMF와 WB가 긴밀히 협력하여 RST를 통한 자금지원 개발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또한 SDR을 MDB에게 자발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할 의지가 있다. 우리는 더 많은 IMF 회원국이 자발적인 SDR 공여 약정에 가입하여 시장역량을 강화하길 요청한다. 우리는 IMF의 추가요금부과 정책에 대한 현황 보고에 감사하며, 이에 대해 앞으로 IMF 이사회에서 예비잔고중간보고(precautionary balances interim review)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파리클럽에서도 동의한 G20 채무상환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 하에 이뤄낸 성과를 환영한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 ]개국이 2차 DSSI 채무상환유예를 신청하여 2021년에 유예된 채무의 총액은 약 [ ]달러이다. 모든 공적 채권자는 해당 이니셔티브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신흥국 및 저소득국가의 팬데믹 대응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MDB가 약속한 2,300억 달러 중 일부인 [ ]달러를 2020년 4월부터 2021년 [ ]까지 DSSI 요건 충족 국가에게 지불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DSSI 요건 충족 국가에게 재해억제 및 부채경감 기금(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CCRT)을 포함하여 230억 달러(순 금액 196억 달러)를 지원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향후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IMF가 CCRT를 위한 추가 공여를 확보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최근 채무재조정(*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 beyond the DSSI*)의 성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며 조정된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채무국에게 확실성을 주고 IMF와 MDB가 빠르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채무국과 민간채권자의 채무재조정 절차 조기 참여를 지지한다. 우리는 채무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채권자 위원회(Creditor Committees)가 채무재조정 요청을 한 국가를 case-by-case에 따라 적절한 해법을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기타 공적 채권자와 민간채권자가 동등대우(comparability of treatment) 원칙 하에 적어도 최혜적(favorable)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차드의 민간채권자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에티오피아를 위한 채권자 위원회 설립을 환영하며, 협상 성과를 기대한다. 우리는 IMF와 잠비아 간 논의에 대한 성과를 기대한다. 우리는 채무취약성과 관련하여 채무재조정(Common Framework)에 명시된 MDB의 향후 업무를 기억한다. 우리는 민간채권자 등 모든 관계자의 채무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재차 언급한다. 우리는 채무정보의 질과 일관성을 향상하고 채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IMF와 WBG 제안의 진전을 기대한다. 우리는 두 번째 자발적 평가에서 볼 수 있듯 G20 지속가능한 자금지원을 위한 부채운용 지침(G20 Operation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ing) 이행의 개선을 환영하며, 국가별 절차를 존중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 IIF/OECD 공동 데이터 저장 포털의 출범을 기대하며, 모든 민간채권자가 해당 이니셔티브를 'IIF 자발적 부채투명성 원칙(IIF Voluntary Principles for Debt Transparency)과 함께 준수할 것을 장려한다. G20은 민간채권자가 참여하는 국가 채무재조정 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IMF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MDB 장기적 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한다. 저소득국가가 자금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지하는바, 우리는 2021년 12월까지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보유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등, 야심찬 IDA20 재원보충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2022년 16차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16) 재원보충을 기대한다. 우리는 MDB 자본 적정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독립적 검토(Independent Review of MDBs' Capital Adequacy Frameworks)를 기대한다. 우리는 G20-아프리카 합의(G20 Compact with Africa)하에 이뤄낸 성과를 환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재다짐한다. 우리는 Finance in Common Coalition을 환영하며, SDG와 파리기후협약 이행에 있어 공적개발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로마에서 개최되는 2021 Finance in Common Summit을 환영하며, Coalition이 이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2022년에 발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자본흐름을 촉진, 지역통화자본시장 개발 및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강력한 쿼터기반의 IMF의 주도하에 견고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유지할 통해 장기 금융 회복력을 강화하고 포용성장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재다짐한다. 우리는 통합 재정프레임워크(Integrated Policy Framework)가 반영된 자본자유화와 자본흐름 관리에 관한 IMF 기관견해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IMF 쿼터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으며 2023년 12월 15일까지 제16차 쿼터 일반검토하에 신규 쿼터공식을 지침으로 포함하여 IMF 거버넌스 개혁의 성과를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부문이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력적 방식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금융안정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 및 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된 다음 단계와 관련된 FSB 최종 보고서를 기대한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회복력 있는 반면, 자본 및 유동성 완충 장치의 기능 및 잠재적 경기순응성 요인과 같은 규제체계의 일부 영역은 추가로 평가될 것이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합의된 G20 규제개혁의 나머지 요소를 개혁 완료하는 것 등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gaps)가 존재한다. 우리는 2020년 11월 FSB 작업 계획을 이행하고 2020년 3월 시장 혼란으로 노출된 취약성을 긴급히 해결함으로써 시스템적 관점에서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 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임시적 개입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MMF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FSB 최종보고서를 승인한다. 우리는 최종보고서상의 프레임워크와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각 관할권의 MMF 취약성을 평가하고 해결할 것이며, 국가별 고려사항을 감안하고 각 관할권의 특정 상황에 맞게 조치를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FSB가 IOSCO와 협업하여 2023년 말까지 MMF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관할권의 이행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안정 위험 대응을 위해 각 관할권이 채택한 조치의 효과를 2026년까지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NBFI 작업계획 전반에 걸친 조사결과 종합, NBFI 위험 모니터링 개선,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위험 완화를 포함하여 NBFI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추가 정책조치가 필요한 영역을 다루는 FSB 경과보고서를 기대한다. NBFI의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국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FSB가 신흥시장의 외부 자금조달 관련하여 USD 국경간 자금조달과 NBFI 관련 취약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사이버 사건 보고에 대한 FSB 보고서를 환영하며 이 분야에서 더 큰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국경간결제를 강화하기 위한 G20 로드맵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1년 설정목표에 대해 보고된 이행현황을 환영하며, FSB 보고서에 명시된 비용, 속도, 투명성 및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한 2027년 양적 글로벌 목표를 승인한다. 이 작업의 성공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또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감독 및 감시에 관한 FSB 경과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감독요건이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적절한 설계를 통해 충분히 다루어질 때까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운용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각 관할권이 FSB 개념적 권고안의 이행에 진전을 보이고, 표준설정기구(SSB)가 2023년 FSB 권고안에 맞추어 표준 또는 지침을 조정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이 이체 기능을 수행하고 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전체적으로 관련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CPMI-IOSCO 협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관련 FATF 기준의 글로벌 이행에 대한 두 번째 12개월 검토결과를 환영하며, 해당 부문의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위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기대한다. 검토결과에 따라, 우리는 개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FATF 기준을 이행하는 각 관할권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CPMI, BIS Innovation Hub, IMF 및 WB가 국경간결제를 강화하는 데에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의 잠재적 역할과 국제통화시스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계속 심화시킬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영세, 중소기업을 포함한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디지털 금융포용을 강화하고, GPF의 작업을 추진하고, G20 20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 새로운 금융포용 전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안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사용능력 및 금융소비자·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G20 정책옵션 메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디지털 금융포용 강화'를 승인한다. 우리는 2022년 G20/OECD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위급 원칙의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G20 송금목표 이행상황에 대한 리더들의 2021년 업데이트를 환영한다. 우리는 GPF가 국가 송금계획의 모니터링을 앞당기고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지지하며, 송금흐름의 지속적 촉진과 평균 송금비용 감소를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FATF에 대한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자금세탁, 테러 및 확산 금융방지(AML/CFT/CPF) 조치의 효과적 이행이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보장하며, 국제금융시스템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합법적인 국경간결제를 보장하고 금융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FATF 권고안상 위험기반 접근법의 그 연관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실소유자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FATF 권고안 강화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확인하고, 특히 FATF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환경범죄로 인한 자금세탁을 근절할 것을 국가들에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FATF 지역기구에 대한 추가적 지지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7월 베니스에서의 약속을 재확인한다.